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NIGHT'S REALM

가제 : 밤의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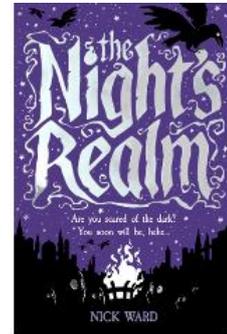
저자 : Nick Ward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분량 : 282 페이지

연령 : 7세 ~ 11세



* 어두운 곳을 아주 무서워하는 소년이 컴컴하고 으스스한 어둠의 왕국 갈하다 -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법사의 주문을 물리쳐야만 하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모험

* <몬스터 주식회사> +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가 만나다 / 로알드 달 + 팀버튼!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든 공포가 스멀스멀 느껴져서 잠들기 전까지 벌벌 떠는 빌리는 겁이 많다고 놀림을 받을 까봐 아무에게도 그런 상황을 털어놓지 못한다. 창 밖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자꾸 뭔가 방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커튼을 살짝 열어 내다보면 정말로 기괴한 형체를 한 존재가 눈에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상상한 거라고만 넘겨 버린다. 가장 친한 친구 톰에게도 밤마다 얼마나 떨면서 잠이 드는지 말을 하지 못한 바람에, 빌리에게는 여느 아이들처럼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밤새도록 떠들고 노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유난히 무서운 밤이 며칠 지나간 어느 날, 빌리는 악몽 같은 일을 겪는다.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보니 대문도, 뒷문도 모두 잠겨 있고 아직 낮인데 갑자기 시커먼 어둠이 몰려 온 것이다. 잠시 후, 괴물 같은 형체가 나타나더니 빌리를 강제로 어딘가로 데려간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빌리의 손목에 빨간 상처가 생긴 날부터 시작됐다.

매일 톰과 함께 공원을 가로 질러 집에 오곤 하는 빌리는 그 날도 각자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 빌리는 사탕 봉지를 잡고 톰은 콜라 캔을 집은 뒤 계산하려고 하는데, 매일 보는 가게 주인아줌마는 어디로 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어찌나 생김새가 흉악한지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지만 빌리는 꼭 참고 계산대에 사탕을 올린다. 거의 입까지 닿을 것 같은 기다랗고 두툼한 코, 푹 튀어 나올 것 같은 두 눈에 머리는 다 벗겨져 잔털만 겨우 남아 있는데 두피는 푸르푸르하고 돈을 받으려고 내민 손에는 손톱이 발톱처럼 길고 보기 싫게 뻗어 있었다. 주인아줌마는 어디 갔냐고 빌리가 묻자, 그는 몸이 아파서 대신 가게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계산이 다 끝난 사탕 봉지를 꼭 쥐 채 빌리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두 눈으로 뚫어져라 빌리를 응시했는데, 채 몇 십 초도 안 된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만

큼 끔찍했다. 묘한 미소를 띠며 마침내 봉지를 놓아준 그를 뒤로 하고 부리나케 가게 밖으로 나온 빌리는 갑자기 손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 열린 소매를 걷어보니, 어딘가에 굽힌 상처가 체크 표시처럼 나 있었다. 이상한 점원의 그 발톱 같은 손톱에 굽힌 것 같은 그 상처는 놀랍게도 뒤이어 나온 통의 손목에도 나 있었다. 그것이 ‘밤의 아이들’로 선택된 표시일 줄은 빌리도 통도 전혀 알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밤의 왕국, 그곳을 지배하는 사악한 마법사는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한도 끝도 없이 끌어 모으는데, 두 아이 모두 그 ‘후보’가 된 것이다. 어두운 곳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들, 컴컴해지면 잔뜩 겁을 집어 먹고 오들오들 떠는 아이들의 공포가 바로 그 마법사에게는 마법의 원료이자, 살아 숨 쉬는 공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늘 다니던 길로 집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둠이 내린 그 날, 빌리가 맞닥뜨린 이상한 존재들은 바로 마법사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을 납치하러 온 부하들이었다. 발버둥쳐도 소용 없었다. 힘 센 괴물 같은 자들은 빌리를 들쳐 업고 거대한 탑으로 데려가더니 대체 몇 층까지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높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교도소 같은 그 탑의 작은 방에 집어 넣는다. 무섭고 겁이 나서 평평 울던 빌리는 이걸 지독한 악몽일 거라고 되뇌며 지쳐서 방 한쪽에 놓인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눈을 뜬 곳은 집이 아니라 같은 방이었다. 절망한 나머지 주저 앉은 빌리는 자신의 이름 대신 방 번호인 5126으로 부르는 괴물들에게 이끌려 ‘빛의 방’이라는 곳으로 향한다. 또 무슨 일을 겪을까, 잔뜩 긴장한 빌리는 같은 반 친구들 몇몇이 곳곳에서 그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뿔 듯이 기뻐한다. 잠시 후에는 통까지 나타났다! 두 친구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해하는데, 그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아이들 앞에 펼쳐졌다. 신나는 놀이기구와 커다란 식탁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얼마든지 먹고 놀라는 괴물들의 말에, 빛의 방에 모인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이기구도 타고 초콜릿 케이크며 치킨, 피자 등 없는 게 없는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실컷 먹고 노느라 지치면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깨어나면 다시 빛의 방에서 지내는 날이 며칠 간 이어졌다. 그런데 7일쯤 되던 날, 빌리는 뭔가 이상한 감새를 느낀다. 친구들의 모습이 변한 것 같았다. 피부는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스름한 회색을 띠기 시작하고, 눈은 툭 튀어나온 모양이 된 데다 눈빛이 어디를 보는지 모를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통은 이름을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 번호만 중얼댔다. 그제야 빌리는 놀이기구며 음식에 뭔가 이상한 마법의 씩뿔져 있음을 깨닫고, 절대 걸려들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아이들이 과거를 잊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을 ‘밤의 아이들’로 살게끔 조종하려던 마법사는 유독 마법이 먹히지 않는 빌리를 주시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빌리와 친구들은 이 무서운 왕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작가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이야기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닉 워드(Nick Ward)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던 대학생 때 첫 아동서가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Don't Eat the Teacher!』, 『How To Be a Practically Perfect Pig』 등 60여 편의 책을 쓰고 일러스트 작업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발표한 책은 세계 각국에서 7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WE SET THE DARK ON FIRE

가제 : 어둠을 불태운 사람들

저자 : Tehlor Kay Mejia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9년 2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2부작 예정



- * “서서히 가열되는 로맨스, 권력 구조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능숙하게 잘 짜인 소설. 여성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정확한지 보여주는 시기 적절한 이야기” - 북리스트
- * “정치적인 모의와 권력, 저항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가 독자들의 심장을 때릴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트레이시 치(Traci Chee)

높은 벽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섬나라, 메디오는 남자가 성인이 되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는 전통이 있다. 지적이고 눈치가 빠르며 집안 대소사는 물론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업무를 두루 보살피는 ‘프리메라’와 지극한 열정과 애정으로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군다’, 명칭도 두 가지로 나뉘는 아내들이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는 최대한 능력 있는 여성들을 새 식구로 들이려 하고,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메디오 여학교’가 탄생했다. 열두 살 때부터 5년간 집중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프리메라 혹은 세군다로 성장하여 명망 있는 가문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곳, 일단 입학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이곳은 다니엘라의 부모님에게는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다. 하나 밖에 없는 딸에게 자신들은 줄 수 없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선사하고, 운이 좋다면 아무 희망 없는 집안에 경제적인 숨통을 틔워 줄 지도 모를 기회였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가난해도 소박하게 사는 생활이 전혀 싫지 않았던 다니엘라는 이런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을 거부하지 못하고 메디오 여학교에 입학한다. 언뜻 보면 그저 야망이 넘치는 행보 정도로 보이는 이 선택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다. 다니엘라와 부모님은 다니엘라가 세 살 무렵일 때 거대한 벽 너머, 메디오 섬의 절반을 차지하는 버려진 땅에서 불법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다.

먼 옛날, 서로 형제였던 소금의 왕과 태양의 왕이 우애 좋게 메디오 섬을 다스리던 시절에는 섬 전체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다. 땅은 비옥하고, 기후도 적당한 섬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의 왕이 섬을 지배하던 왕가의 공주와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현명하고 재치 있는 공주와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의 왕에게 폭 빠져버린 달의 여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두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태양의 왕은 둘 다 아내로 맞이한다고 선언했고 달의 여신에게 헌신하던 소금의 왕은 이기적인 처사라며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형에게 결국 이기지 못한 소금의 왕은 저주를 남긴 채 메디오 섬을 떠난다. 섬의 절반은 어떠한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소금에 절은 토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지독한 영향이 넘어오

지 않도록 거대한 벽을 세우고 살아 남은 나머지 절반의 땅에서는 그 때부터 남자가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벽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해마다 병들어 죽는 비참한 삶이 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라도 얻게 되는 이 섬에서 소금의 땅에 살던 다니엘라의 부모님은 가난과 빈곤에 분노한 그곳 젊은이들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폭력적인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어린 딸과 함께 벽을 건넜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삶에서 벗어나자 부모님은 더 성공을 바라게 되었고, 다니엘라를 메디오 여학교에 진학시킨 것이다.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6명의 전체 졸업생은 물론 프리메라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이를 앞으로 다가온 졸업식 후에는 메디오 섬에서도 가장 권력이 막강하고 부유한 집안으로 유명한 가르시아 집안의 외동아들, 마테오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다. 이제 그간의 마음 고생과 자신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더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던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잘 나가는 가문에서는 메디오 여학교의 졸업생 중 마음에 드는 여성 두 명을 선택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그 돈은 졸업생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가르시아 집안에서는 대대로 엄청난 돈을 내놓기로 유명했다는 것을 잘 아는 다니엘라는 부모님이 작은 집과 땅을 사서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 그런데 졸업식 바로 이틀 전, 이 모든 꿈을 박살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 야간에 울린 비상 경보로 시작된 사건이었다.

보안이 철통 같은 학교 기숙사 건물에 침입자가 나타나자 내부인의 소행을 의심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데, 모두 자다 깨서 황망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웬 낯선 남자가 다니엘라를 한 쪽으로 데려간다. 그는 다니엘라가 들고 있던 위조 신분증을 빼앗아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기겁한 다니엘라에게 뺨뺨한 새 신분증을 건넨다. 얼마 전 검사 방식이 변경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다간 단번에 들통날 뻘한 걸 구해준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그 남자는 다니엘라가 불법 이주자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라 보즈’ 출신이라고 밝힌 순간, 다니엘라는 그 속내를 알게 된다. 벽과 권력 집단을 무너뜨리고 섬 주민 전체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며 과격한 시위를 벌여온, 악명 높은 단체가 엘리트로 꿈꾸는 다니엘라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 곧 새 식구가 될 가르시아 집안의 약점과 비밀을 캐는 스파이가 되라는 것이다.

하필이면 5년 간의 학교생활 내내 자신을 비웃고 싫어하던 카르멘이 마테오의 두 번째 아내, 세군다로 지명되면서 한층 더 험난한 결혼생활이 예고된 다니엘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권위적이면서 숨기는 것 투성이인 마테오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큰 위기를 겪지만, 라 보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도, 자신도 쫓겨나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총 2부작으로 완성될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뜻밖의 로맨스와 묵직한 사회적 문제를 절묘하게 결합되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테홀러 케이 메지아(Tehlor Kay Mejia)는 YA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위 소설에 이어 『PAOLA SANTIAGO AND THE DROWNED PALACE』, 『METEOR』도 출간될 예정이다.